

초월과 진리, 주변에서 중심으로

- 한국 교회 위기의 본질과 극복을 위한 신학 윤리학적 분석 -

신원하(고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I. 한국 교회의 신뢰도 위기와 윤리적 무기력

1. 한국 교회의 위기: 윤리적 무기력
2. 위기의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신학적 연구의 필요성

II. 현대문화에의 동화와 신학의 주변화

1. 현대 문화의 자아 중심적 개인주의
2. 한국 교회의 현대 문화 수용적 목회 경향: 개인주의의 수용
3. 세속화와 진리 주장의 축소: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III. 목회자의 비윤리성: 권력, 교권, 물욕

IV. 교회의 윤리적 회복을 위한 대안

1. 하나님 이야기 다시 중심으로: 신학의 회복을 통한 윤리적 탁월성
2. 현대 문화와의 관계와 초월과 거룩을 강조하는 대응양식
3. 하나님 말씀과 이야기를 통한 탁월한 덕의 공동체 구현
4. 목회자의 자질과 도덕성 제고: 절대적 개인주의와 구도자적 목회자

V. 나가는 글

• ABSTRACT •

Transcendence and truth from Margin to Center: A Theological
Ethical Analysis of the crisis of Protestant Churches and Tasks for Its
Overcoming

Shin, Won-ha

In spite of explosive growth of Protestant church in Korea, Protestant church has been losing its moral impact on the Korean society. Its moral crisis is mainly due to church's secularization which losing its distinctive characters identified such virtues as transcendence, holiness, and the absoluteness of God's words. In pursuit of pulling many people in, Protestant churches accomodated itself to modern culture dominated by modernism which puts great emphasis on ego, happiness, healing, nurture of individuals. It considerably adopted modern business administration in church ministry as well as psychology in preaching. The church has been changing itself into a sort of institution for healing, up-building, and enhancing of egos, rather than community of God.

In oder for the church to recover from its moral impotence, it has to bring transcendence and holiness back to its preaching and message. By doing that, it should transform itself to be a community of distinctive character in belief and life.

Key words: moral impotence of Protestant churches, secularization, modernism, psychological message, healing center, transcendence, holiness

I. 한국 교회의 신뢰도 위기와 윤리적 무기력

1. 한국 교회의 위기: 윤리적 무기력

현재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기독교회 역사에서 보기 드문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 각 교단마다 대부분 전 세계적에서 가장 큰 교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누란지세(累卵之勢)와도 같은 형국이다. 위기의 핵심은 1960년대 이후 약 30년 동안 매년 거의 100만 여 명씩 증가하던 교인 수가 1990년대 초반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어떤 정량적 감소보다는, 현재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다시 회복하기 힘든 지경까지 추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가 개신교회에게 어떤 신뢰감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덩치는 커져 있지만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2008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가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하여 통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한국개신교회의 현상이 생생히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개신교는 천주교와 불교보다 사회적 신뢰도가 낮고, 호감도도 떨어진다. 서울대학교 김병연교수는 3년 동안 조사된 이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개신교회의 신뢰도 추락의 원인을 외부적 문제가 아닌 교회 내부적 문제에서 찾았다. 그가 분석한 핵심 원인은 첫째 기독교인의 언행 불일치, 둘째 설교와 삶에 있어서 목사들의 신뢰상실, 셋째 개신교회의 사회활동과 그 기여 수준이 다른 종교에 비해 낮게 인식되는 점 등이다.¹⁾

1) 김병연,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목적, 방법론과 결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서울: 기윤실, 2008), 36;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 분석」, 『2010년 한국교회

이것들을 통해 본다면,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는 종교단체로서 뭔가 다른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비감,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인 탁월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²⁾ 사람들은 교회가 뭔가 사회와는 달리 삶과 행동에서 도덕적 수월성(秀越性)을 기대했지만, 교회가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여론조사를 분석한 학자와 목회자들은 결론적으로 신뢰도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교인의 윤리적 삶과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교인과 목회자들의 언행일치,³⁾ 교회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과 교인의 개인윤리 증진,⁴⁾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윤리적 탁월성 제고이다.⁵⁾

2. 위기의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신학적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목회자, 신학자들로부터 한국교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이 상태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서구 교회의 전철을 밟아 멋있는 곧 예배당에 나이 지긋한 노인들만 남아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오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점점 압박한 현실이 됨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회에 청년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

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52.

2) 한기채, 「기독교 대의 신뢰도」,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서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47; 이문식,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대한 목회적 반응」, 50.

3) 김병연,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 분석」,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발표 세미나』(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09), 50.

4) 이숙중 「개신교회의 사회 자원을 넓히는 길」,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40.

5) 임성빈 「신학자가 보는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44.

문이다. 이것은 청년들의 인구가 노인에 비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가나안 신자’⁶⁾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개신교회는 앞으로 존재감, 영향력, 활력에 있어서 다른 종교에 뒤처지고 그냥 한국의 기타 종교들 중의 하나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⁷⁾ 그렇다면 이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현재 한국교회의 이런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치열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대책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은 한국교회가 무기력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도덕적 탁월성 부재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의 핵심적 관건은 윤리적 수월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이 윤리적 위기는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선포 그리고 그 빛에서 세상과 신자의 삶을 바라보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메시지와 논의 즉 신학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 것에 있다고 보면서, 이 원인을 신학적, 종교사회학적인 면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김병연 교수는 개신교회의 신뢰도 추락과 윤리적 탁월성 부재는 교회 내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이 현상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력인 현대 문화의 영향과 아울러 교회의 지나친 세상적 방식 채택과 문화 수용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임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논문은 교회가 현대 문화와 모더니즘의 세력을 자신이 지닌 신앙과 신학으로 변혁시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따라 동화되어 가면서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윤리적 무기력이라는 현상을 낳은 것임을 분석할

6) 자신을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는 **안 나가**는 사람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말.

7) 김형국,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본질적 고민과 제언」,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61.

것이다.⁸⁾ 나아가 교회가 현대 문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그리고 교회의 신뢰도와 윤리적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몇가지 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현대문화에의 동화와 신학의 주변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가 자신에 관해 계시한 진리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에게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교회는 교리로 만들어 자신들의 믿는 바를 체계화해 왔다. 이것이 신학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교회는 이 진리가 신자들의 삶을 이끌도록 계시된 지식을 신앙고백으로 만들어 가르쳐왔고, 신자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 죄, 세상, 구원, 등에 대해 알게 되며, 이 세상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런 신학에 믿음과 삶의 토대를 두었고, 신자들은 신학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내용을 얻고 그런 삶을 위한 규범을 얻어왔던 것이다. 이처럼 교회와 신자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에 대한 신앙고백, 즉 신학이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전과 달리 신학이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이끄는 현상이 현저하게 퇴조되어 있다. 신앙고백과 신학적 성찰이 교회의 주변부로 현저히 물러나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교회 성장에 관심과 비중을 높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점점 현대 사회의 문화와 사조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점점 동화되어 간 결과라고 할 수

8) 이 주제는 일찍이 리처드 니버의 교전적 명저인 기독교와 문화에서 니버가 교회역사를 통해 교회는 늘 주변 문화와 씨름하고 대응해 왔는데 교회의 대응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바 있다.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기독교와 문화』, 홍병룡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7).

있다.

1. 현대 문화의 자아 중심적 개인주의

한국사회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난 뒤, 서구로부터 들어온 근대화(modernization)⁹⁾ 물결을 타고 1960년 후반기부터 산업화되어 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변화하였고, 그 가운데 급속하게 도시화되어 왔다. 기술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었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고, 수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더러는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다. 전통적 공동체를 떠나 도시로 몰려든 다른 지역 배경과 계층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은 전통적 공동체의 규범, 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의 문화와 사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사람들의 사고와 삶은 보통 어떤 특정 사상이나 사조보다도 자기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 즉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으로 대변되는 도시의 문화를 공기처럼 호흡하며 살기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시민들은 그 영향을 받으며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현대 문화의 성격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자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를 들 수 있다. 도시화로 전통적 공동체가 와해되고, 이전 지역적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규범적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이것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대화로 배태된 현대문화와 모더니즘의 저류에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가 핵심적 흐름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근대이후 산업화와 계몽주의를 거쳐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이후 이 경향은 고조되었다. 근대화는 외적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기술혁명과 함께 진행

9) Modernization은 사회과학에서 통상적으로 '근대화'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더러는 '현대화'로 쓰이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용어를 교호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인간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모더니즘(modernism)은 데카르트(1596-1650)에서 출발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의 사상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왔는데, 이것이 인간은 이성적 사유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배양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성의 합리적 회의와 사유를 거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다.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합리주의와 시민의 뜻에 기초한 세속 국가, 시민 국가가 등장했고, 사람들은 자신감의 문화를 만들어 갔는데, 그 중심에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있었고, 따라서 점점 이성이 사회와 공적인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초월적인 것은 여러 권위 중의 하나로서 취급되고 사회의 중심적인 자리에서 점점 주변으로 물러나게 되었다.¹⁰⁾ 이런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점점 사회에 대한 종교의 독점적 지배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성, 과학, 합리적 관료제도 등을 통해 사회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른바 세속화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근대 계몽주의 이후 자라온 이런 분위기는 산업화와 기술공학의 발전과 아울러 인류 진보에 대한 희망을 낳았고, 나는 사회 건설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양차 세계대전, 핵무기 사용, 냉전으로 인한 계속되는 전쟁과 대량살상, 생태계 파괴,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의 현상을 겪으면서 점점 진보와 낙관적 시각이 퇴조하면서 서서히 회의주의, 허무주의, 현실도피주의, 해체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는 새로운 사조, 즉 포스트모더니즘이 자리를 잡게 된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 어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나 사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신뢰하지 않으며 그 사고에 가

10) Paul G. Herbert, *Transforming Worldviews: An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How People Change*, 홍병룡 옮김,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서울: 복있는 사람, 2010), 270. 보다 자세한 것은 7장(근대적 세계관) 전체를 참고하라.

치를 별로 두지 않고, 오히려 개별적인 것에 근거한 진리 혹은 사실을 중시한다.¹¹⁾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나 전통의 절대성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으면 어떤 단일한 절대적인 것보다는 다원성을 인정하는 그런 세계관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래서 이전사교보다는 더 주관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내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자아중심주의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모더니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²⁾

이처럼 현대 문화 주변에 깔려있는 모더니즘과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진리나 규범을 연역하여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보다는 자기에게 의미 있는 신념체계 내지 종교를 선호하고 선택하며 살려하게 된다. 사람은 어떤 공동체나, 국가나, 절대자를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며 사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산업화와 프랑스 혁명을 거쳐 이러한 경향이 사조와 삶에서 확산되어 왔는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와 동료 사회학자들은 1980년대 중반 미국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분석한 기념비적인 책에서, 미국 시민들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나라 국민이라는 생각에 영향을 받거나 기독교적 공동체의 이상과 덕목에 따라 살려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자기 개인의 욕망과 사적인 목적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¹³⁾ 현대문화의 영향을 받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현대문화와 모더니즘의 특징은

11) 위의 책, 419-434. 폴 허버트는 “자아”라는 말은 다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율적 개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12) 위의 책, 432.

13) Robert Bellah, et al.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New York: Harper and Row, 1985).

자본주의와 기술혁명 그리고 도시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런 현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와 국민들 역시 현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아 중심적이 되고 개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에 우선의 가치를 두며 살게 되면서 동일한 과정을 시간차를 두고 밟아가게 되었다.

2. 한국 교회의 현대 문화 수용적 목회 경향: 개인주의의 수용

한국 개신교회는 지난 30여 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수가 아주 늘어났고 성장했다. 교회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중의 하나는 교회수가 많아지니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성장하는 교회와 함께 문을 닫는 교회도 생기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교회, 그리고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가운데 현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설교의 내용에서부터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핵심 교리를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거의 대중의 기호를 반영하는 채울 수 있는 방식이라면 가감하게 도입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강단의 메시지는 점점 하나님과 초월적 진리에 대한 것(God-talk)에서부터 점점 성공, 행복한 삶, 자아개발, 내적 치유 등과 관련된 메시지 (Human-Talk)로 옮겨져 왔다. 예배 공간이나 예배 형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교회 공간도 무대식 강단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 순서도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조정하고, 전통적인 찬송과 아울러 감성적이고 현대적인 가사와 멜로디의 복음 송을 받아 들이면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현대인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에 맞추어 그들을 교회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현상은 미국 교회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특히 지난 80년대부터 예배, 메시지, 교회 음악에 있어 상당히 현대적으로 바뀌어져 갔다. 50년대 60년대에만 해도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토대로 하는 교회와 차별성을 부각하며 죄,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의 대속, 회개, 중생, 영생과 같은 성경적 설교를 중시하며 전해왔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복음주의 교회가 부흥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다른 교회를 의식하게 되고 교회 성장에 가치를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사람들을 교회로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해지고 문화를 폭넓게, 깊이 수용하게 되면서 교회는 성경적인 독특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포용적이 되어 갔다.¹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본질적인 교리에 타협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것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관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도시민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교회는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적 분석을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영학 이론과 기법을 도입하여 목회와 교회 성장 전략에 활용하게 되었다.¹⁵⁾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표에 목회의 방향과 성격을 조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성장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양보하고 변화를 도모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신앙고백, 교리와 신학,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에 조금씩 소홀해지게 되었고, 결국 이 현상은 교회가 진리를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서

14) 한상화, “미국 복음주의 신학의 최근의 동향과 진보적 복음주의,” 『성경과 신학』, 제 28권 (2000년), 101.

15) 김홍만,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동향과 평가: 구원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47호 (2008): 104.

서히 벗어나게 되었다.¹⁶⁾ 데이비드 웰스(David Wells)는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이런 변화의 성향을 “마케팅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하는데, 이는 교회가 마치 기업이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며 기업을 운영하듯이, 신자들의 기호에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교회는 그 결과로 점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힘을 잃게 되었다고 웰스는 진단한다.¹⁷⁾ 그런데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보여준 이 현상은 현재 1990년대 이후 특히 21세기의 한국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1967년에 쓴 그의 책 *The Sacred Canopy*에서 현대문화는 점점 전통적 종교 기관이나 교회에게 다음의 두 유형의 존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종교 기관이나 교회가 스스로 세속화와 다원주의적 상황에 적응해서 마치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consumer demands)에 맞게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듯이, 변화하는 현대 문화상황에 따라 자기 신앙의 설득력과 신뢰구조를 과감히 변형시켜 나아 가든지, 둘째 아예 주위 문화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구조 뒤에서 숨어 지내면서 마치 주위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옛 목표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¹⁸⁾ 그런데 그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대부분 전자의 유형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를 한국교회에 대입하여 보면 최근 한국 교회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최근 부쩍 내적 치유와 같은 개인의 손상된 자아 치유, 자존감 회복과 같은 주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강의와 세미나에 열을

16) 위의 글, 110.

17) David F. Wells, *The God in Wasteland*, 윤석인 옮김, 『거룩하신 하나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128.

18) Peter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1967), 153.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이런 힐링 문화가 전반적으로 번지고 있기도 하다.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성경적 언어로 포장한 심리적 기법을 통해 감성적으로 어루만지고 위안을 주는 사역에 목회적 강조점을 두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많은 전문인들의 강의를 열고, 또 설교 시간을 통해 그 방법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보여주는바, 교회는 점점 현대 문화와 사람들의 요구와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충족시켜 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고 편안히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목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기준, 거룩한 삶 등을 외치는 대언자요 선지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일종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점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처럼 자존감 회복, 내면적 치유가 점점 목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 거룩한 공동체, 성도의 삶을 통한 사회적 성화와 같은 주제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성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관심이 기울어지면서 사회악과 병리 현상에는 점점 눈을 감고, 그것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곤경에 대해서는 더 무관심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3. 세속화와 진리 주장의 축소: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현대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세속화 현상이다. 세속화라는 용어는 사회 안에서의 종교의 위상이 약화되는 현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사회학적 개념이다. 일찍이 사회학자 어거스트 콩트(August Comte, 1798-1857)는 인간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사회 조직은 신학적, 형이상학적, 그리고 과학적 단계를 거쳐 진화한다고 보았다.¹⁹⁾ 사람들의 의식과

19) Lewis A. Coser,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s: Ideas in Historical and Social*

사회 조직은 유아기나 덜 분화된 상태에서는 종교가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국가가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간이 사회의 중심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²⁰⁾ 사회가 분화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성적 합리성이 증가할수록, 이성과 과학이 종교적 신념과 관습을 그 사회에서 조금씩 몰아내게 되는데, 이것이 세속화 현상이다.²¹⁾ 쉽게 말하면 사회적 제도나 관습들이 종교나 종교적 믿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난 사회는 거의 세속화가 따라왔는데, 막스 베버(Max Weber)는 사회가 전문화되고 세부 조직들이 합리화, 관료화되어 가는 것이 세속화를 진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버거(Peter Berger)는 세속화를 “사회의 여러 영역과 문화가 점점 종교적 제도들과 상징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과정”²²⁾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속화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consciousness)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종교적 해석의 도움 없이 자신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다.²³⁾ 버거는 종교가 전통적으로 소위 거룩한 제도와 상징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나 개인을 묶어주고 통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세속화는 이 기능을 사회로부터 제거함으로써 개인이나 사회를 느슨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보았다.²⁴⁾

Contex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1), 7

20) 위의 책, 8.

21) Herbert,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285.

22) Berger, *The Sacred Canopy*, 107.

23) 위의 책, 108.

24) 버거는 세속화란 사회에서 종교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보는 Thomas O'Dea와 달리 그것을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들이 종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견해를 보인다. 오데이는 세속화는 합리성의 증가로 생기는 것이기에 자연이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의 쇠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버거는 세속화를 사회의 여러 영역에 대해 종교적 상징과 제도의 지배에서 조금씩 자유롭게 되는 과정으로 보면서, 그 결과로 사회에 통합적 기능을 느슨하게

세속화가 보이는 주요 특징중의 하나는 종교가 점점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되는 것이다.²⁵⁾ 종교의 기능이 공적인 영역에서 점점 사적 영역으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예전에는 종교가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세속화가 될수록 종교가 차지하던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대화 이전에 종교가 지녔던 확실성이 이성, 과학 등의 다른 것에 의해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신념과 믿음은 점점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²⁶⁾ 그래서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의 종교는 점점 내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관장하는 것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세속화의 주요한 내용이며 현상이다. 그래서 세속화되면 될수록, 그 사회에서는 탈종교적 이성이 기반이 된 중립적 토대가 넓어져서 다양한 가치, 의미체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해 가기가 쉽게 된다. 버거는 이 현상은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이 점점 더 축소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교에 크게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세속화가 교회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본다. 세속화를 “사회기관들, 세계관들 그리고 개인의 일상생활들이 교회적, 혹은 신적 권위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혹은 그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²⁷⁾ 즉 신학자들이 볼 때 세속화는

한다고 보았다. Thomas O’Dea, *The Sociology of Religion*,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Co., 1966), 81-86; Peter Berger, *The Sacred Canopy*, ch. 5.

25) 세속화에 대한 생각과 정서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세속화 과정에서 점점 종교는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지고 물러나게 되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Kieth A. Roberts,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2nd ed. (Belmont, Calif.: Wadsworth, Inc., 1990), ch 14.

26) Peter Berger, *The Heretical Imperative: Contemporary Possibilities of Religious Affirmation*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1979), 26.

27) Klaus Bochumuehl, “Secularization and Secularism: Some Christian Considerations,” i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the Modern World*, eds. Mark Noll and David Well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8), 267.

하나님과 그에 관한 진리가 교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부터 물러나서 단지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신학자 웰스는 교회도 이런 세속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 거룩, 구원, 신앙, 신자의 거룩한 삶과 같은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점점 신자 개인의 사적인 삶에 관련된 문제를 안내하는 지식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본다.²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변화되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것이 신자의 일상생활의 일들에 별로 상관이 없게 되고, 결국 신학이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 어떤 통합된 단일된 세계관으로 작용하는 중심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신학의 그런 기능이 사라지거나 약화되어 버림에 따라 신자의 개인의 체험, 다양한 인간적인 전문지식이 강화되고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경적 진리 보다는, 늘 변하는 문화와 개인의 상황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속화가 신학과 교회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비록 주요 신조의 내용을 믿거나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사회, 공공 생활에서 꼭 적용해야 할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 또는 앎으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세속화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리의 사사화와 주변화는 신자의 개인적, 사회적 도덕성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초월적인 하나님에 관련된 진리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멀어지게 되니, 교회와 신자는 점점 다원주의, 상대주의에 문을 열게 된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들의 생각 혹은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 그리고

28) David F. Wells,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김재영 옮김 『신학실증』,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29-32.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들 가운데 유용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

현재 한국 교회가 도덕성과 덕을 상실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의 일상의 모든 영역의 삶에서도 규범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개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진리나 신학보다는 오히려 실용적 지식이고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오래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진정한 힘은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힘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현대화와 세속화의 영향을 받은 교회는 진리를 점점 사사회하고 주변화시킴으로, 신학이 사라지고 약화됨으로, 그 초월적 권위에서 오는 비범성과 도덕적 탁월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III. 목회자의 비윤리성: 권력, 교권, 물욕

최근 한국교회의 무기력과 영향력 감소는 상당부분 교계 지도자와 목사들의 도덕적 탁월성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 기윤실의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 중 첫째가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로 꼽혔지만, 개신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서는 교회지도자들이 일순위로 거론되었다(28.3%). 이 사실은 사회가 교회지도자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일반교인들에게 거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현재 한국 교회에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교회가 많이 있지만, 고(故)한경직 목사와 같이 국민적으로 존경을 받는 도덕적 거인으로 인정받는 목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명망있는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더러는 교권 문제, 교회 세습, 이념적 편향성과 관련된 일들로 매스컴에 오르내림으로

29) 김병연,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 분석」, 46.

오히려 개신교회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교단들의 총회나 노회 혹은 지방회에서 일어나는 목사들의 교권다툼과 금권선거는 이제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다. 교단의 최고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에 걸 맞는 대접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다. 한편으로 다른 많은 목사들은 대형교회의 부정적인 현상을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그래서 부교역자들을 채용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하여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면 목사들은 권력에 취해 방자해지고 교권을 휘두르기도 한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면 그 권력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유혹을 받거나 실제로 시행하기도 한다.

교회 세습은 일반 세상에서 흔히 있는 권력과 명예의 대물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담임목사직 세습은 단순히 목사직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권한(재산권, 인사권 등)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 기관인 교회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것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한다.³⁰⁾ 실제로 각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유력 교회 중 적지않은 교회들이 세습을 이미 끝낸 교회들이 많다. 2000년을 전후로 거의 유행처럼 진행되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목사직 세습 문제에 이례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2012년 9월 25일에 감리교가 임시 총회에서 담임목사직을 가족에게 세습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공영방송들과 주요 신문사들이 앞 다투어 비중 있게 보도한 바 있다. 이 문제가 비상한 사회적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매우 심각하게 한번 분석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담임목사의 세습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이에 실망하고 그 교회를 옮기거나 떠났다. 이런 현상은 결국 비판과 냉소를 야기

30) 권혁률, 「한국교회, 무엇이 걸림돌인가?」, 『기독교 사상』 (2010년 11월호), 23.

하게 하고, 결국 ‘가나안’ 교인을 더 낳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사회에서 지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초월적인 영역에서 오는 경건과 신령한 것을 통한 안식을 기대하여 교회에 왔다가, 일반 사회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목사들과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며, 심지어 분노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에는 종종 보도되는 목사들의 성적 비행도 한 몫을 한다. 우리 사회와 불신자들은 목사들의 권력과 명예를 향한 집착과 행동에 대해 결코 너그럽게 봐주지 않는다. 그들은 목사를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많은 회중들에게 고상한 설교만을 일삼는, 이중인격자 내지 위선자로 보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 신앙역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종교적 가르침으로 치부해 버리고, 교회에 대해 냉소하게 되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일부 유명 목사들이 균형을 잃은 편향된 정치적 활동도 교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을 한다. 대형교회 목사들 중심으로 신자를 동원하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하곤 했는데, 이런 일들은 의식있는 시민들과 젊은이들에게 교회와 목사라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들은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시절에는 정교분리를 내세우며 침묵으로 일관했었다가, 국민의 정부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어떠한 신학적인 해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십자가와 성조기를 들고서 시청 앞에서, 또 대형 체육관에서 구국 기도회를 열고 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이념과 정파를 지지하는 활동을 빈번하게 해 왔다. 이는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 지도자인 팻 로버슨(Pat Robertson) 목사나 제리 포웰(Jerry Falwell) 목사가 8-90년대 보여 주었던 기독교 세력의 정치세력화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 지난 17대 대선을 전후해서는 장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교

계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노골적으로 설교를 통해 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상식과 판단력있는 시민들의 빈축을 사기에 모자라지 않는 것들이었다.³¹⁾

IV. 교회의 윤리적 회복을 위한 대안

1. 하나님 이야기 다시 중심으로: 신학의 회복을 통한 윤리적 탁월성

한국 교회의 위기와 윤리적 타락은 하나님과 절대 진리를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여 사사화한 것, 교회가 점점 개인주의에 물들어 영적 소비자 중심의 자아충족 지향적목회로 나아간 것에 기인한다고 하면, 회복의 길은 하나님과 초월적인 진리가 교회의 중심에 다시 복귀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초월적 영역에 대한 인식과 앎, 그리고 이에 대한 전인적 체험이 신자의 삶의 전 영역에 연결되어 도덕으로 발전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최근 성장 지향적으로 달려온 교회가 현대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에 동화됨으로, 성경적 가치와 도덕적 탁월성 보이는데 실패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비록 문화적 코드에 적응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머물러 있도록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초월적 하나님과 진리의 세계를 신자들이 체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덕을 실제로 살아내는 제자로 신자들을 만드는 데에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자들의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사역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사회와 이웃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일에는 거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

31) 위의 글, 26.

이다.

한국 교회는 세속화되어가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공적인 영역에 적용시키는 일에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신자들은 점점 더 초월적인 것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점점 사사화하게 되었다. 교회가 공동선을 도모하고 신장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고, 그 점에서 최근의 한국 교회는 “공적 영성”의 빈곤함을 보여 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³²⁾ 신자들이 신앙이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형태로 바뀌어져 가면서, 기독교회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력을 잃게 되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정의와 공동선을 신장하는 데 무관심하거나 기여하지 못하는 종교 공동체는 그 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별로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소모성 집단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음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공적 영성의 회복 그리고 윤리적 탁월성을 배양하는 것에서부터 현재의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기를 시작해야 한다.³³⁾ 현재 한국사회는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문제, 빈곤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노사 갈등의 문제와 같은 보편적인 문제와, 전쟁을 체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 간의 이념차로 인한 갈등, 그리고 남북 간의 여전한 대치 상태에서 오는 긴장과 남북통일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 사이에서의 생존문제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신자들이 이 사회적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단지 교회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위안이나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에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서 신뢰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질 것이고 도덕적 존재감이 희미해져 결국은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32)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62.

33) 위의 글, 65.

교회는 이 윤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본질은 자아가 아닌 하나님 이야기가 다시 중심이 되도록 신학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그를 아는 바른 지식이 점점 증만하게 되면 신자들은 그 빛에서 세상과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또 반성하는 안목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자신과 사회를 절대의 기준에서 돌아보고 상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배양하고 구현해 나가는 일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 교회의 윤리적 탁월성은 이 비밀상성의 일상화를 통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현대 문화와의 관계와 초월과 거룩을 강조하는 대응양식

현대 사람들은 이전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종교의 지배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사회에서 종교의 쇠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버거는 최근의 논문을 통해 20세기 하반기 종교 상황은 오히려 50년 전에 비해 종교가 쇠퇴하기보다는 부흥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료 분석을 통해 제시하면서, 어떤 면에서 ‘세속화는 종교의 쇠퇴를 초래한다’는 고전적 세속화 이론은 수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³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종교성은 변함없이 존재하며, 확실성에 기대어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여전하다는 것이다.³⁵⁾ 그래서 만약 현대성에 의해 이것이 심각하게 침식당하여 존재의 불안함

34) Berger,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Introduction” in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ed. Peter Berger. 김덕영, 송재룡 옮김, 『세속화나? 탈세속화나?: 종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2), 15.

35) 이때 버거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의미는 다분히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학자나 사회학자들 가운데 종교를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또 사람들이 의존하는 신념체계’라고 이해하는 기능론적 정의를 택하기도 한다. 종교의 정의에 관련해서는 다음 책이 잘 정리해 주고 있다. Kieth A. Roberts,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2nd ed. (Belmont, Calif.: Wadworth, Inc., 1990), ch 1.

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확실성을 확보하여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종교를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기에 사회의 불안 요소가 증가하면 종교는 다시 부흥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³⁶⁾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이 불안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심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버거는 현대성의 영향으로 비록 교회가 이전처럼 사회나 인간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종교 자체는 결코 쇠퇴하지 않았고, 여전히 신념과 의식과 상징을 통해 개개인의 삶에 유효한 기능을 가진다는 주장한다.³⁷⁾

이런 주장을 유의미하게 생각해 본다면, 한국 교회는 과연 문화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 앞서 버거가 분석한 두 유형처럼 교회가 자신의 진리 체계나 언어, 그리고 제도와 운영방식을 현대성에 맞게 바꾸고 적응하여 문화에 대처하든지, 아니면 아예 문화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하부구조를 만들어 생존해 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유형을 먼저 생각해 보자. 교회는 현대성과 가치를 거부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우선 신자들끼리 이루어진 종교 하위문화와 집단을 만들어 살아가야 한다. 주위의 현대 문화의 영향에서 가능한 스스로를 차단하고, 자체적 신학과 문화 안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내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과연 이렇게 자신의 고유한 신념구조를 유지하며 차단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는데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얼마나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유형은 자기 신학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칫하면 교회를 사회의 하위집단으로 계도화시켜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교회는 복음을 사회와 소통

36) Berger,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Introduction", 27.

37) 위의 글, 20.

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소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첫째 유형은 어떠한가? 교회가 지닌 교리나 내용이 다소 세속에 동화되더라도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비신화화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으로 윤리를 도모하고 고양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의 의도와는 달리 이것은 교회가 가진 고유한 것을 거의 포기하고 문화에 동화해 버리는 것으로 기독교의 고유성을 잃는 위험한 방식이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이 유형은 지난 역사를 통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이미 20세기 전반부에 이런 방식을 취했던 미국 자유주의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최근 미국 시라큐즈의 종교학 교수인 존 카푸토(John D. Caputo)와 같은 학자는 사건의 신학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의 존재 양식을 취하는 것으로 동일시한다. 그래서 미움과 양갈음에 대해서도 사랑과 용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이고 예수의 사건이라고 보는 신학을 전개하는데 이는 초월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기독교는 거의 기독교적 사건으로 대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³⁸⁾ 이것은 기독교 신학 없는 기독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포스트모던적 문화에 있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 주장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에게 소비적 매력이 있고 그들의 포스트모던적 영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기독교를 신학이 없는 윤리체계로 환원시켜 버려, 결국 본질을 양보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형도 기독교회의 힘을 이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 가야할 것인가? 앞에서 시사했듯이 기독교회는 교회가 지닌 초월적 자원의 힘을 신뢰하면서 이것을 통해

38) John D. Caputo, "The Sense of God," in *Between Philosophy and Theology*, eds Lieven Boeve and Christophe Brabant, 27-41. 최승락 "반기독교 운동, 그 실태와 대처," 『개혁신학과 교회』, vol. 26, (2012), 130, 재인용.

일상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켜 가는 길을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유형은 신학과 윤리가 통합된 방식이다. 현대 문화의 영향 아래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피조된 인간이기에 자신들 안에 초월자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감성, 존재에 대한 불안, 죄에 대한 감각, 양심에 따른 도덕관념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신학자 웰스는 사람은 자기 본성 안에 이에 대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지만 이를 억누르고, 포스트모던적 문화를 수용하여 죄의식을 수치심으로 포장하고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⁹⁾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본성적으로 죄에 대한 감각이 있고, 이에 따라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웰스는 교회는 현대인의 근원적 죄의식에서 말미암는 좌절과 공허감을 인식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 공의와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같은 성경적 진리를 동시에 선포하며, 그것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오는 근원적 죄사함과 용서와 채움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⁰⁾

사실 버거는 『이단의 명령』(The Heretical Imperative)이라는 후속 책에서 제 3의 유형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다시 종교가 종교의 본질과 핵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그 핵심인 무한자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재발견하고 천명하는 것으로 현대성에 대응해 갈 수 있다고 했다.⁴¹⁾ 사람들마다 시대가 바뀌더라도 성과 속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교회는 다시금 현재에서 하나님과 초월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을 강조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초한 경험보다는, 사람들이 일상으로부터 느끼는 귀납

39) Wells, *Losing Our Virtues*, 윤석인 옮김 『윤리실종』(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242-261.

40) 위의 책, 324-331.

41) Peter Berger, *The Heretical Imperative*, 129-130.

적인 초월에 대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다분히 자연신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소지가 크기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⁴²⁾ 그렇지만 이 유형이 담고 있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적 패러다임은 유용하다는 볼 수 있다. 즉 교회가 현대성과 문화에 대한 동화나 전적인 거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이곳과 일상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독교회는 현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게 하는 방안을 더 강화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경건한 자아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진 자들끼리 집단적인 형태로 그 경험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더욱 이것을 공동체를 통해 강화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⁴³⁾ 교회는 초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문화에 본질을 타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개신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이 지닌 초월적인 능력을 신뢰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더욱 초월의 영역을 맛보게 하는 방향으로 목회방식을 바꾸어 현대 문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현대 문화의 흐름을 전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절대적 진리를 양보하면서 문화적 코드에 적응하는 것은 본질을 팔아버리는 것이지만, 젊은이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관심사를 잘 간파해서 그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초월의 세계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하는 것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42) Klaus Bochmuehl, "Secularization and Secularism: Some Christian Considerations," 280.

43) 위의 글., 134.

3. 하나님 말씀과 이야기를 통한 탁월한 덕의 공동체 구현

교회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르며 살아가고 그것을 공동체에서 이 땅에 구현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였다. 교회는 세상의 일반적 공동체의 규범이나 가치와 다른 독특한 삶의 가치와 질서를 가진 공동체였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비록 소수였지만 사회적인 존재감, 파급력과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았다. 신학자 존 요더(John H. Yoder)는 이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대조되는 독특한 덕목을 지니고 행동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였다고 말했다. 예수를 철저히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말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그 중심적 의미는 세상의 관계, 통치 방식과 대조되는 용서, 관용, 사랑, 낮음, 비움, 희생과 같은 덕목을 공유하고 또 살아내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스탠리 하우워스(Stanley Hauerwas)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형에 따라 교회는 제자들로 구성된 탁월한 성품의 공동체(A Community of Character)가 되어야 하며, 일반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을 넘어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왔던 그런 덕목을 배양하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하우워스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 하는데 충분한 그런 미덕을 지닌 사람들을 함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⁴⁾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우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왔고 살려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증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어야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양해야

44) Stanley Hauerwas,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97. 이에 관련된 것을 잘 분석하여 소개하는 책으로, Stanley Grenz, *The Moral Quest: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옮김,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한국 기독교생회 출판부, 2001), 226-232를 참고하라.

한다는 것이다.⁴⁵⁾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매개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덕목과 성품을 알게 되고 형성해 갈 수 있게 된다.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교회 건물, 신자의 수, 경제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지닌, 일반 사회의 것과 뚜렷이 대조되는, 독특한 질서와 그 덕, 그리고 그것에 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달려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지니는 독특하고 차별적인 독특한 행동과 습관은 그 자체가 대조성과 영향력을 갖는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무슨 덕이 있든지.....이것들을 생각하라”(빌4:8-9)라고 권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탁월한 덕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신앙공동체로서 동시에 그 신앙을 살아내는 덕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명령한 것이다.⁴⁶⁾ 이것은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성격의 교회는 대조공동체로서 존재함으로 사회로 하여금 스스로를 반추하여 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회가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하는 도덕적 거울 내지 준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교회는 이런 탁월한 덕목을 지닌 공동체로 변화하고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독특한 윤리 공동체라는 성격과 기능을 깊이 인식하고 이 본연의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⁴⁷⁾ 교회는 돈, 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약함과 비움을 추구하고, 가난하더라도 평화로운 삶을 사는 자가 존중받는 공동

45)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Notre Dame: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1981), 63-64.

46) 최승락, “바울의 덕 사상과 덕 철학의 점점 찾기,” 『성경과 신학』, 제59권 (2011), 49.

47) 남태욱,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윤리적 과제,” 『성경과 신학』, 제53권 (2010), 190.

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가 성공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센터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 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신비와 부요를 누리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초월에서 오는 신비한 힘을 맛보고 그것을 삶으로 체화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한 질서와 덕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자리잡아가도록 방향을 다시 세워가야 한다. 교회는 서로의 생각을 관용하고, 존중하고, 인내하는 덕을 가진 자들이 함께 하는 곳, 사회와는 달리 능력 없고, 약한 자들이 와도 차별하지 않고 환영하는 곳, 사랑으로 환대하는 곳, 그러한 덕이 나뉘지고 또 함양되는 그런 곳이라는 인식이 일반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되면, 교회는 조금씩 사회적인 인식과 신뢰도를 확보해 가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사회적 영향력으로 쌓여가게 될 것이다.

4. 목회자의 자질과 도덕성 제고: 절대적 개인주의와 구도자적 목회자

교회가 이런 탁월한 도덕 공동체로 거듭나는 데에는 목회자의 설교나 권면 그리고 교리문답이나 성경공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앞서서 탁월한 덕을 행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신자들은 지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어찌면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목사나 지도자가 보이는 모습에 더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바로 그들을 동일시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전문가, 치유자, 경영가가 되기 앞서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살아내려는 구도자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윤리적 건강성은 목회자의 도덕성에 크게 의존한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된 데에는 목사의 비윤리적 모습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최근 분석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한국 카톨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도 신부와 사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카톨릭 교회는 자체 통계조사를 통해 1995년부터 2005까지 10년 동안의 교인이 약 345만 명에서 약 467만 명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약 35.2% 성장을 한 셈이다. 그런데 한국 통계청 조사는 천주교인이 514만 명이라고 밝혔지만, 카톨릭교회는 실제로 스스로를 천주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숫자보다 더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천주교가 최근 이렇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천주교에 대한 호감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에 영향을 끼친 것은 1)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증진에서의 천주교회의 역할, 2)사회 봉사 및 복지 분야에서의 헌신, 3)타종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4)천주교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 강화, 5)성직자와 평신도의 사랑실천 운동으로 꼽았다.⁴⁸⁾

정재영과 이승훈교수는 천주교가 성장하는 이유를 크게 “끌어당기는 요인”과 “밀어내는 요인”으로 분석한 것은 흥미롭다. 전자로서는 개신교회와는 달리 천주교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스러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사회 정의 구현에 노력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 억울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고 자하는 천주교 신부들의 대사회적 활동이 호감을 사고 이런이 사람들에게 천주교회로 끌어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밀어내는 요인이란, 개신교가 제공하는 것인데, 개신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교인들의 언행불일치, 목회자에 대한 실망과 개신교회의 분위기 자체의 피상성과 경건성 부재와 같은 것이 천주교회의 성장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것이다.⁴⁹⁾ 일부 개신교 새신자들 가운데 세상과 다른 경건과 영성을 기대하고 교회로 왔던 사람들이 개신 교회가 보이는 천박함과 세

48) 오경환, “가톨릭 신자의 팔목할 만한 증가와 그 요인” 『목회와 신학』 (2007년 1월), 159.

49) 정재영, 이승훈, “개종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종교성,” 『목회와신학』(2007년 1월호), 169.

상성에 실망하고 천주교로 옮기는 자들이 적잖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밀어내는 요인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개신교회의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그에 따라 사는 구도자형보다는 신자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경영인, 그리고 상담이나 행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낳고 있다. 관리자요 교회 경영인으로서 직분으로 탈바꿈되면 될수록, 경영과 운영에 관한 식견은 높아지나, 자신을 말씀 담지자와 전달자로 스스로 인식하는 목회자와 비교할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소홀해 질 수 있다. 목사의 윤리적 탁월성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그를 더욱 더 깊이 알아 가는 것에서 출발한다. 어떤 면에서 ‘철저한 개인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현대성과 현대문화의 핵심이 자아 추구적 개인주의라고 앞에서 비판했지만, 사실 기독교도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자와는 성격이 다른 개인주의이다. 현대성이 낳은 개인주의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아 중심적 개인주의라고 하면, 성경과 특히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 제시된 개인주의는 “절대적 개인주의”(absolute individualism) 라는 성격의 개인주의이다.⁵⁰⁾ 그래서 에른스트 트뢰치히는 개신교 종교개혁 신학도 이 흐름에서 은혜로 구원 받은 개인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에 “종교적 개인주의”(religious individualism)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다.⁵¹⁾ 목사들은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경건한 삶을 도모해 가야 한다. 목사의 영적, 도덕적인 권위는 진리에 잠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체화해서 확신있

50)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 Olive Wy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55.

51) 위의 책, 557.

게 전하고 살아내는 것에 크게 의존한다. 아무리 현대 문화에 물든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전문인의 기능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는 이것에 앞서 구도자형 목회자로, 진리의 담지자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대언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에 따라 목회하는 일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글

한국교회는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국교회의 무기력과 위기의 핵심은 교회가 특별히 윤리적인 탁월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기독교가 천주교와 불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종교적 시민단체보다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이 슬픈 현실을 교회는 통렬히 반성하면서 교회는 신뢰도 회복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여 회복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교회의 윤리적 탁월성의 부재는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과 개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문화에 점점 동화되어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인간의 자아를 중심에 둔 것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교회가 세상 문화의 코드에 따라 변화하면서, 자신이 지닌 고유한 비범성의 근원인 초월성과 거룩한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그에 관한 지식과 진리를 파편화시킴으로, 그 초월적인 것에서 오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고 아울러 초월성의 빛에서 사회와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변혁적으로 사는 것이 약화된 결과로 교회는 윤리적으로 탁월성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교회지도자의 부패와 윤리적 미숙함도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만든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분석했다.

교회는 이제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진 독특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대조적 공동체로서의 독특성과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닌 본질 즉 진리에 대한 고백과 가르침이 교회의 중심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진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신앙고백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안목,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성품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이 빠진 교회는 속이 빈 강정과도 같다.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고 힘의 원천이다. 이것이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교회가 본질적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가 사람을 변화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성경이 그리고 기독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과 다양한 가치관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진리의 내용에 결코 다른 문화적인 옷을 입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그 진리적 사실만을 강하게 증거 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교회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본질이 되는 진리를 교회의 중심에 자리잡게 하고, 더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체화해서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의 진리가 세상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실히 더욱 굳게 붙잡고 신뢰해야 한다.

참고문헌

- 권혁률. “한국교회, 무엇이 걸림돌인가?” 『기독교 사상』 (2010년 11월호): 22-31.
- 김병연.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 분석,”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09: 33-52.
- 김병연.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 분석”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10: 31-54.
- 김병연.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목적, 방법론과 결과”,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08: 21-38.
- 김형국.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본질적 고민과 제언”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10: 55-61.
- 김홍만.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동향과 평가: 구원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제47권 (2008): 87-115.
- 남태욱.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윤리적 과제,” 『성경과 신학』 제53권 (2010): 171-201.
- 오경환. “가톨릭 신자의 괄목할 만한 증가와 그 요인,” 『목회와 신학』 (2007년 1월): 158-164.
- 이문식.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대한 목회적 반응,”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08: 48-50.
- 이숙중. “개신교회의 사회 자본을 넓히는 길”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08: 39-41.
-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 임성빈. “신학자가 보는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08: 42-44.

- 정재영, 이승훈. “개종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종교성,” *목회와 신학* (2007년 1월호): 165-172.
- 최승락. “바울의 덕 사상과 덕 철학의 점점 찾기,” 『성경과 신학』, 제59권(2011): 37-71.
- 최승락. “반기독교 운동, 그 실태와 대처,” 『개혁신학과 교회』, 통권26호 (2012): 113-141.
- 한기채. “기독교 대외 신뢰도”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서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08: 45-47.
- 한상화. “미국 복음주의 신학의 최근의 동향과 진보적 복음주의,” 『성경과 신학』, 제28권 (2000년): 85-121.
- Bellah, Robert, et al.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New York: Harper and Row, 1985.
- Berger, Peter L.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7.
- Berger, Peter L. *The Heretical Imperative: Contemporary Possibilities of Religious Affirmation*.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1979.
- Berger, Peter L.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Introduction” in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ed. Peter Berger. 김덕영, 송재룡 옮김,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2.
- Bochumuehl, Klaus. “Secularization and Secularism: Some Christian Considerations,” i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the Modern World*, eds. Mark Noll and David Well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8: /?.
- Coser, Lewis A.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s: Ideas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1.
- Grenz, Stanley *The Moral Quest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옮김,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1.
- Hauerwas, Stanley,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Notre Dame: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1981.
- Herbert, Paul G. *Transforming Worldviews: An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How People Change*, 홍병룡 옮김,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 Niebuhr, H. Richard. *Christ and Culture*. 홍병룡 옮김, 『기독교와 문화』.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7.
- O'Dea, Thomas. *The Sociology of Religion*,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Co., 1966.
- Roberts, Kieth A.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2nd ed. Belmont, Calif.: Wadworth, Inc., 1990.
- Troeltsch, Ernst,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 Olive Wy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Wells, David F. *The God in Wasteland*, 윤석인 옮김, 『거룩하신 하나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 Wells, David F.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김재영 옮김, 『신학실종』.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 Wells, David F. *Losing Our Virtues*, 『윤리실종』, 윤석인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논문투고일: 2013. 6. 29.

심사개시일: 2013. 7. 15.

게재확정일: 2013. 8. 12.

• 국 문 초 록 •

한국교회가 현재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할 정도로 낮고,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 원인을 종교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세속화 흐름에 교회가 동화되어 진리 주장을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축소시켜왔고, 또 한편으로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점점 현대 문화를 수용하여, 개인자아와 행복, 성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개인주의적 모더니즘을 수용하면서 하나님, 진리, 초월, 거룩, 그리고 신자의 독특한 삶에 관한 것보다는 자아, 쉽, 치유, 행복, 자아개발과 같은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경영학과 심리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신학을 점점 중심 자리에서 몰아내어 왔다. 교회가 신학으로 현대문화를 변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동화되면서, 교회가 초월에서 오는 독특한 힘을 서서히 잃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학과 경영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과 거룩을 강조하는 신학이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신자 공동체의 독특한 성격과 덕목이 회복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초월과 거룩 앞에 서는 절대적 개인주의를 갖춘 신자와 그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그것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주제어: 한국교회의 도덕적 무기력, 세속화, 현대문화, 개인주의, 치유중심적 설교, 초월, 거룩, 신학의 회복, 교회의 독특성.
